

선택의 위험과 보상 수준이 의사결정자의 사회경제적 지위 지각과 고통 추정에 미치는 영향*

하 창 현 허 성 진 박 상 희[†]

충북대학교 심리학과

본 연구에서는 사람들이 위험-보상 정보에 따라 의사결정을 내린 타인을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초점을 맞추어, 대상이 위험-보상 수준이 높은 의사결정을 내린 것이 대상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낮게 지각하는 편향을 가져오고, 이 편향이 최종적으로 대상이 느끼는 정서적 신체적 고통에 대한 과소 추정으로 이어지는지 실험적으로 검증하였다. 이를 고려하여 지각된 사회경제적 지위를 매개변인으로 설정하였으며, 탐색적인 목적으로 대상 성별과 위험감수 성향을 각각 조절변인과 매개변인으로 설정하였다. 연구 결과, 참가자들은 위험-보상 수준이 더 높은(vs. 낮은) 의사결정을 내린 대상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더 낮게(vs. 높게) 지각하였으며 대상이 경험하는 신체적 고통에 대해 더 낮게(vs. 높게) 추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서적 고통에 대한 추정에서는 위험-보상 수준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가설에서 예측한 바와 다르게 위험-보상 수준이 고통 추정에 미치는 영향이 사회경제적 지위 지각과 독립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위험과 보상 정보가 의사결정 주체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관찰자가 의사결정자를 지각할 때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였다는 데에 그 의미가 있다.

주요어 : 위험-보상 수준, 사회경제적 지위, 고통 추정

* 본 논문은 충북대학교 국립대학육성사업(2021)지원을 받아 작성되었음.

† 교신저자: 박상희, 충북대학교 심리학과 교수, 충북 청주시 흥덕구 증대로 1, E-mail : sangheepark@chungbuk.ac.kr

사람들은 의사결정을 할 때 위험과 보상을 고려하여 선택지 중 최선의 선택을 한다. 이러한 현상은 의료적 처치를 받을지의 결정에서부터 금전적 투자 방식의 결정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영역에서 나타난다. 이와 관련된 선행 연구들은 주로 제공된 정보가 기부 단체 선정, 재분배 정책 지지 여부 등의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이나(Caviola, Schubert, & Nemirow, 2020; Jackson & Payne, 2020), 전염병이 만연한 상황, 법원의 판결이 공표된 상황 등 특정 맥락들이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 등(Tankard & Paluck, 2017; White, Kenrick, & Neuberg, 2013)에 초점을 맞춰서 진행되어 왔다. 하지만 관찰자가 의사결정을 내린 타인들을 어떻게 지각하는지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타인을 어떻게 지각하는가가 타인에 대한 여러 행동적 결과들과 관련되어 있다는 점(Gino & Pierce, 2010; White, Kenrick, & Neuberg, 2013)에서 의사결정자가 내린 선택이 관찰자의 지각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임상 시험이라는 특정 맥락에서 관찰자가 여러 대안들 중 위험과 보상 정보에 의거해 특정한 선택을 한 의사결정자를 어떻게 지각하는지 실험적으로 살펴볼 것이다. 또한 그 지각이 특정 편향으로 이어지는 양상을 탐구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위험과 보상이 큰 선택을 한 대상에 대해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을 것으로 예상하고, 그러한 사회경제적 지위에 대한 편향된 지각이 의사결정자가 느낄 고통을 과소 추정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가설을 검증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타인의 위험한 의사결정을 관찰한 뒤에 발생할 수 있는 편향을 임상 시험 장면이라는 맥락에서 검토할 것이다. 최근 단기간에 큰 돈을 벌 수 있는 임상 시험 아르바이트로 많은 청년들이 몰리고 있는 현상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최근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많은 대학생들이 ‘당장 생활비가 급히 필요해서(35.8%)’, ‘쉽게 돈을 벌 수 있을 것 같아서

(26.4%)’, ‘짧은 시간에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서(18.1%)’ 등 대개 금전적인 이유로 임상 시험과 같은 고위험 아르바이트에 참여하고 있으며, 특히 본인 명의의 대출이 있거나 등록금을 자기가 부담하는 학생들이 고위험 아르바이트 참여한 적이 많았다(『대학내일 20대 연구소』, 2015. 1. 20). 하지만 임상시험 부작용을 경험했을 때 마주할 여러 상황 등 임상시험 참가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문제들에 대한 과학적 연구는 아직 부족한 실정이다. 만약 연구에서 가정하는 대로 위험과 보상이 큰 선택을 하는 것이 고통에 대한 과소추정을 야기한다면, 고위험 아르바이트 중 하나인 임상시험에 참가한 청년들의 부작용 보고 등이 상대적으로 과소평가될 수 있고 결국 이에 따른 적절한 처치가 이루어지는 데에도 방해가 될 수 있다. 특히 약물로 인한 이상 반응을 보였어도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되거나 증명하기 어려운 경우 참가자가 모든 책임을 떠안아야 하는 현실과 임상시험 참가자의 대부분이 상대적으로 사회경제적 자원이 부족한 저소득층 청년들로 이루어져 있음을 고려해 볼 때(경향신문, 2015. 11. 7), 임상시험 장면에서 존재하는 편향의 위험성이 특히 크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임상시험 장면에서 어떤 편향이 존재하는지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인지 탐색하는 것은 그 자체로 현실적 함의를 가질 것으로 기대된다. 가상의 임상시험 장면에서 연구하는 것은 연구의 이론적 모형을 검증할 수 있음과 동시에 사회적 문제 제기에도 부응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본 연구에서는 임상시험 장면에서 실험적으로 본 연구의 가설을 검증하였다.

위험-보상과 사회경제적 지위

사회경제적 지위(socioeconomic status)가 낮을수록 비합리적이거나 위험하고 충동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경향이 있음이 많은 연구에서 보고되어 왔다(Griskevicius et al., 2013; Prediger, Vollan, & Herrmann, 2014; Shah, Shafir, & Mullainathan,

2015). Griskevicius 등(2013)이 연구에서 경기 침체를 의미하는 지표들(vs. 자연 이미지)을 참가자들에게 제시한 경우, 어린 시절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참가자일수록 더 즉각적인 보상을 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위험 감수 의사결정 과제에서 어린 시절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참가자들은 그렇지 않은 참가자들보다 더 위험을 감수하는 선택을 하였다. Prediger 등(2014)은 자원과 경쟁 압력이 반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는데 자원이 부족하고 경쟁 압박이 높은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일수록 더 자주 반사회적 행동을 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경제적 행동을 살펴본 연구들에서는 자원이 부족한 조건의 참가자들이 자원이 풍족한 조건의 참가자들보다 돈을 더 많이 벌리고 장기적 이익보다 단기적인 이익을 더 우선시함을 발견하였다(Shah, Mullainathan, & Shafir, 2012). 또한 사람들은 자원이 부족할 때 부족한 자원과 관련된 단서들에 더 많은 주의를 기울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은퇴나 재정적인 불안을 겪는 사람들은 돈과 관련된 단서들에 더 쉽게 주의를 빼앗긴다(Gutierrez & Hershey, 2013; Shapiro & Burchell, 2012). 종합하면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사람에게는 위험 정보보다 보상에 더 많은 가중치를 두는 등의 인지적 편향이 발생할 수 있고 이것이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제 3자인 관찰자는 위험과 보상 정보에 근거해 선택을 한 의사결정자를 어떻게 바라볼까? 본 연구에서는 위험과 보상의 정도가 작은 쪽보다 큰 쪽을 선택한 사람들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더 낮게 지각할 것이라 예측한다. 이러한 가설은 관찰자들이 사회경제적 지위와 위험 감수 경향에 대해 가지고 있는 암묵 이론에 근거한다. Griskevicius 등(2013)은 자원이 부족한 사람일수록 위험을 더 감수하는 경향이 있음을 보였는데, 현실에서 자원이 부족한 사람의 위험 감수 선택을 관찰하는 일은 사람들로 하여금 이에 상응하는 암묵 이론을 형성하게 할 수 있다

(Eriksson, Strimling, & Coultas, 2015). 즉 사회경제적 지위와 위험감수 성향 사이에 형성된 암묵적인 신념을 바탕으로, 사람들은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사람들이 큰 보상을 얻기 위해 위험을 감수하는 의사결정을 내릴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가능성을 임상 시험의 맥락에서 살펴보았으며, 관찰자의 입장에서 의사결정자의 선택에 대해 해석하고 그것이 의사결정자의 사회경제적 지위 추정에 영향을 미치는지 검증할 것이다.

사회경제적 지위와 고통 추정

타인의 의사결정으로부터 그 사람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추론할 수 있다면, 추론된 사회경제적 지위는 그 타인에 대해 어떤 영향을 미칠까? 본 연구에서는 대상이 내린 선택지의 위험과 보상의 수준에 따라 사회경제적 지위를 다르게 지각하는 것이 파생시킬 수 있는 부정적인 결과로서 대상이 경험한 고통의 추정에서 편향이 발생하는지를 살펴보았다. 구체적으로 위험과 보상이 큰 선택지를 고른 의사결정자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낮게 지각하는 것이 그 의사결정자의 고통을 낮게 지각하는 편향으로 이어지는지를 검증하였다.

사람들은 특정 대상들에 대해서 고통을 과소 추정하는 경향이 있다. 타인의 고통 지각과 관련된 선행 연구(Drwecki, Moore, Ward, & Prkachin, 2011)에서는 흑인이 백인에 비해 고통을 덜 느낄 것이라 예상하는 편향을 발견하였다. 이 결과는 백인 연구 참가자들과 흑인 참가자들 심지어 의료 업무를 수행하는 간호사들에게서도 관찰되었으며, 후속 연구에서는 이러한 편향이 흑인들의 삶이 더 많은 역경을 겪었다는 생각에 기인함을 드러내었다. 특정 대상들이 고통을 덜 느낄 것이라고 지각하는 현상은 대상의 인종에 국한되지 않고 사회경제적 지위의 높고 낮음에 따라서도 비슷한 결과를 드러냈다(Cheek & Shafir, 2020; Trawalter, Hoffman, & Waytz, 2012).

사회경제적 지위와 고통 추정에 대한 연구 중 하나로 Joynt 등(2013)이 미국 NHAMCS (National Hospital Ambulatory Care Survey)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환자들은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환자들보다 진통제를 처방받은 빈도가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Cheek과 Shafir(2020)는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사람들이 스트레스 사건에 더 강인할 것 같다고 여겨지는 경향을 확인하였으며, 이러한 경향은 그들이 어려운 삶의 환경 속에서 자랐기 때문에 더 강인할 것이라는 인식에 기인함을 밝혀냈다. 이렇게 특정한 집단의 사람들이 고통을 덜 느낄 것으로 기대하는 현상을 'thick skin bias'(두터운 피부 편향; Cheek & Shafir, 2020; Trawalter et al., 2012)라고 한다. Summers, Deska, Almaraz, Hugenberg와 Lloyd(2021)는 사회경제적 지위와 고통 지각에 대한 여러 연구를 진행하였다. 참가자들은 소득이 낮은 대상들을 소득이 높은 사람들보다 고통을 덜 민감하다고 평가하였으며, 참가자들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참가자들 자신의 고통 민감성을 통제하였을 때에도 대상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 대상의 고통을 과소 추정하는 결과가 관찰되었다. 연구자들은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대상들의 고통을 과소 추정하는 기제를 살펴보았는데, 참가자들이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대상들의 강인함을 높게 지각하기 때문에 대상의 고통 민감성을 낮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상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고통 추정에 미치는 영향은 대상의 인종(흑인, 백인)과 성별에 관계없이 일관되게 발견되었다.

두터운 피부 편향에 대한 설명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타인의 삶이 좀 더 어려운 환경 속에 놓여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그들의 고통을 과소 추정하게 만든다는 것이다. 이러한 생각을 본 연구의 맥락에 적용하면, 타인이 위험과 보상이 큰 선택을 하는 것을 관찰하고 그 결과 그들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낮다고 지각할 경우, 이러한 사회경제적 지위에 대한 편향이 궁극적으로 타

인의 고통 지각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 추론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고통을 과소 추정하는 편향이 발생하게 된다면 대상에게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이나 고통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 부적절한 의료적 대처 또는 처치가 이루어질 수 있다. Drwecki 등(2011)의 연구에서는 참가자들에게 흑인과 백인 환자들이 등장하는 영상을 보여주고 얼마만큼의 약을 처방할 것인지 등의 질문을 하였다. 참가자들은 고통을 덜 느낄 것이라 여겨지는 흑인들에게 백인들보다 의료적 처방을 덜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심지어 참가자들이 의료업계에 종사하는 간호사인 경우에도 동일한 현상이 나타났다. 이와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타인에 대한 고통을 과소 추정하면 그들에 대한 부적절한 처치나 처방이 발생할 수 있기에, 본 연구에서는 선택지의 위험과 보상에 대한 정보가 타인의 사회경제적 지위 지각에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이것이 결과적으로 두터운 피부 편향을 발생시키는지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가설들은 다음과 같으며, 연구 모형은 그림 1에 제시하였다.

가설 1. 위험-보상 수준에 따라 의사결정을 내린 대상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다르게 지각될 것이다. 구체적으로, 대상이 참가한 임상 시험의 위험-보상 수준이 낮은 경우에 비해 참가한 임상 시험의 위험-보상 수준이 높은 경우 대상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게 지각될 것이다.

가설 2. 위험-보상 수준에 따라 의사결정을 내린 대상의 고통 추정에 차이가 나타날 것이다. 구체적으로, 대상이 참가한 임상 시험의 위험-보상 수준이 낮은 경우에 비해 참가한 임상 시험의 위험-보상 수준이 높은 경우 대상이 경험한 고통이 적게 추정될 것이다.

가설 3. 위험-보상 수준과 대상의 고통 추정 사이의 관계는 지각된 사회경제적 지위에 의해 매개될 것이다. 구체적으로, 대상이 참가한 임상 시험의 위험-보상 수준이 낮은 경우에 비해 참가한 임상 시험의 위험-보상 수준이 높은 경우 대상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게 지각될 것이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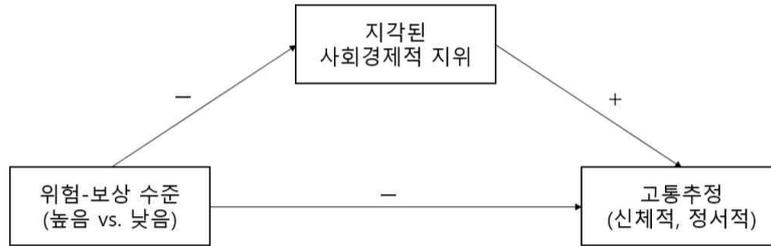


그림 1. 위험-보상 수준과 고통 추정의 관계에 대한 지각된 사회경제적 지위의 매개 모형

낮게 지각된 사회경제적 지위가 대상이 경험한 고통에 대한 더 낮은 추정으로 이어질 것이라 예측하였다.

추가로 본 연구에서는 가설에서 서술한 여러 관계들이 대상의 성별에 따라 달라지는지를 확인하고 이를 통계하기 위한 목적으로 대상 성별을 연구 모형에 추가하여, 대상 성별의 조절 효과를 탐색적으로 살펴보았다.

방 법

본 연구의 가설, 분석 방법, 참가자 수 산출 방법, 참가자 제외 기준, 측정 도구 및 절차 등을 the Open Science Frame Work에 사전 등록하였으며 관련 내용을 모두 빠짐없이 기술하였다 (osf.io/jak53).

연구 참가자

본 연구의 참가자 수는 사회심리학의 중간 효과 크기(Richard, Bond, & Stokes-Zoota, 2003)인 Cohen's $d = 0.36$ 과 80% 이상의 검증력을 기반으로 G-power(Faul, Erdfelder, Lang, & Buchner, 2007)를 사용하여 산출되었다. 사회심리학의 중간 효과 크기를 사용한 이유는 연구의 효과 크기를 모르는 상황에서 평균 효과 크기보다 더 보수적인 추정치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검정을 실시한 결과로 얻어진 수는 246명이었고,

G-power로 참가자 수를 산출하는 방법이 매개분석을 위한 참가자 수를 과소 추정한다는 권고(Schoemann, Boulton, & Short, 2017)에 따라 본 연구의 최종 참가자 수를 280명 이상으로 설정하였다. 본 연구는 국내 리서치 회사인 한국 리서치를 통해 301명(여자 150명)의 참가자를 모집하였으며, 자료 분석에 동의하지 않은 참가자 11명을 제외한 290명(여자 147명)의 자료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주의 점검에서 탈락한 참가자들은 없었으며, 최종 분석에 사용된 참가자들의 평균 나이는 34.80세($SD = 8.07$)였다.

연구 설계 및 절차

연구의 모든 절차는 온라인으로 진행되었다. 참가자들은 개인의 추론 능력을 살펴보기 위한 연구라는 설명을 읽고, 연구 참가 동의 여부에 응답한 후 연구에 참가하였다. 연구는 실험의 주요 관심 변인인 위험-보상 수준과 탐색의 목적으로 추가된 대상 성별을 참가자 간 변인으로 하는 2(위험-보상의 수준: 높은, 낮은) × 2(대상 성별: 남자, 여자)의 설계이며, 참가자들은 네 개의 조건 중 하나에 무선으로 할당되었다.

먼저 참가자들은 인구 통계학적 질문(성별, 나이)에 답을 한 뒤, 각 조건에 해당하는 시나리오(입상 시험 참가자 모집 공고문)를 제시받았다. 참가자들은 조작 점검 문항들에 답하고 시나리오에 등장하는 인물을 자신의 친구에게 소개하는 글을 적었다. 이 글을 작성시켰던 이유는 참가자들이 시나리오에 등장하는 인물의 인

상을 구체적으로 형성하도록 돕기 위함이었다. 그 후 참가자들은 주의 점검 문항에 답하고, 시나리오 대상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추정하는 물음과 대상이 느끼는 고통을 추정하는 문항들(정서적 고통, 신체적 고통)에 순서대로 답하였다. 끝으로 참가자들은 임상 시험에 참가한 경험이 있는지를 묻는 물음과 자신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묻는 물음에 답하였다. 모든 절차를 마친 참가자들은 연구에 대한 사후 설명서를 읽고, 연구는 종료되었다. 모든 연구 절차와 측정 도구는 연구자 소속 대학교의 생명윤리심의위원회(IRB)의 승인을 받았다.

측정 도구

시나리오(임상 시험 참가 공고문)

위험과 보상 수준의 조작을 위해 네 가지 버전(높은 위험-보상과 대상 성별 남자, 낮은 위험-보상과 대상 성별 남자, 높은 위험-보상과 대상 성별 여자, 낮은 위험-보상과 대상 성별 여자)의 시나리오를 제작하였다(부록 1). 참가자들은 ‘대상이 최근에 내린 임상 시험 참가 결정과 관련된 정보가 제시될 것입니다. 대상이 참가하려고 고민했던 두 개의 임상 시험 공고문과 최종 참가 결정에 대한 정보를 보고 그에 대한 추론 과제에 답할 것입니다.’라는 지시문을 제공받았다. 위험-보상의 수준이 높은 조건의 시나리오는 부작용(뇌경색, 피부 괴사, 백혈구 감소 등)이 심각하고 위험하며, 보상 금액(450만 원)이 큰 임상 시험으로 구성되었고, 위험-보상의 수준이 낮은 조건의 시나리오는 부작용(가벼운 기침, 졸음, 가려움 등)이 경미하고 보상 금액(15만 원)이 적은 임상 시험으로 구성되었다. 대상 성별은 시나리오에서 ‘20대 남성 이민혁’ 또는 ‘20대 여성 이지혜’로 제시하여 조작되었다. 참가자들은 시나리오에서 대상이 두 개의 임상 시험 중 하나에 참가를 고민하고 있다고 들은 뒤, 위험-보상 수준이 높은 버전과 낮은 버전의 시나리오를 모두 제시받았다. 이후 각 조건에 맞게 대상이 위

험-보상 수준이 높은 또는 낮은 임상 시험에 참가하기로 결정하였다는 글을 읽었다.

조작 점검

위험-보상 수준의 조작이 잘 이루어졌는지 확인하기 위해, 참가자들에게 위험과 보상의 크기에 대해서 각각 물었다. 위험 수준에 대한 조작 점검 문항은 ‘귀하가 생각하시기에 대상이 참여한 임상 시험이 얼마나 위험하다고 생각하십니까?’의 한 문항으로 구성되었고, 참가자들은 자신의 생각을 7점 척도(1 = “매우 안전하다”, 7 = “매우 위험하다”)에 표시하여 답하였다. 보상 수준의 조작 점검 문항은 ‘귀하가 생각하시기에 대상이 참여한 임상 시험 사례비의 크기가 어느 정도인 것 같습니까?’의 한 문항으로 구성되었고, 참가자들은 사례비 크기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7점 척도(1 = “매우 적다”, 7 = “매우 많다”)로 답하였다.

지각된 사회경제적 지위

대상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추정하기 위해, Adler 등(2000)의 사회경제적 지위 척도를 본 연구의 맥락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한 문항으로 구성되며, 사다리의 최상층은 가장 돈이 많고, 교육 수준이 높고, 최고의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뜻하고, 사다리의 최하층은 돈이 거의 없고, 교육 수준이 낮고, 안 좋은 직업을 가지거나 아예 직업이 없는 사람들을 뜻한다. 참가자들은 1부터 10까지의 숫자가 표시된 10개의 가로대가 있는 사다리 이미지와 설명을 제시받은 뒤, ‘대상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사다리의 어디에 위치할 것 같습니까?’의 물음에 사다리의 10개 가로대들 중 한 곳에 표시하여 답하였다. 숫자가 클수록 대상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높게 추정하였음을 의미한다.

고통 추정

대상의 고통을 추정하는 것은 두 가지의 고통 유형(정서적 고통, 신체적 고통)에 대해 다섯

문항씩 총 10문항으로 측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고통 추정 문항들은 선행연구(Cheek & Shafir, 2020)에서 사용된 문항들을 본 연구의 맥락에 맞게 수정하거나 추가로 제작된 것이다. 정서적 고통 문항들은 ‘대상은 상사에게 일을 못한다고 모욕적인 말을 들었습니다.’, ‘대상은 1년 정도 교제 중이던 이성과 이별을 했습니다.’ 등의 다섯 문항(Cronbach's $\alpha = .81$)으로 구성되었고, 신체적 고통 문항들은 ‘대상은 달리기를 하던 중 돌부리에 걸려 넘어졌습니다.’, ‘대상은 방을 정리하던 중 압정에 손이 찢렸습니다.’ 등의 다섯 문항(Cronbach's $\alpha = .89$)으로 구성되었다. 참가자들은 대상이 겪은 다양한 상황에 대한 글을 읽고, 그 사건에서 대상이 얼마나 신체적 또는 정서적 고통을 받았을 것 같은지에 대해 9점 척도(예: 1 = 덜 고통스러워할 것 같음, 9 = 더 고통스러워할 것 같음; 숫자가 클수록 더 기분 나빠할 것 같음을 의미)로 답하였다.

위험감수 성향(탐색적 변인)

본 연구에서는 사회경제적 지위의 매개효과가 나타나지 않았을 경우, 대안적으로 위험감수 성향의 매개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대상들의 위험감수 성향이 얼마나 높거나 낮을 것 같은지를 측정하였다. 위험감수 성향을 측정하기 위한 문항들은 Knowles, Cutter, Walsh와 Casey(1973)가 만든 위험감수 척도(Risk-Taking Questionnaire)를 이흥표(2002)가 타당화한 것을 사용하였다. 총 15개의 문항들 중에서 연구의 맥락에 맞는 세 문항을 선정하여 사용하였다. 참가자들은 위험감수 성향을 묻는 세 문항(‘대상은 웬만하면 위험한 일을 피할 것 같다.’, ‘대상은 위험할 것 같은 상황을 피하는 편일 것 같다.’, ‘대상은 위험한 행동을 자주 할 것 같다.’; Cronbach's $\alpha = .80$)에 7점 척도(1 = “전혀 그렇지 않다”, 7 = “매우 그렇다”)로 답하였다. 첫 번째와 두 번째 문항은 역문항이며, 위험감수 척도의 점수가 높을수록 위험감수 성향이 높음을 의미한다.

주의 점검

참가자들이 시나리오와 질문들에 주의를 기울였는지 확인하기 위해 두 개의 주의 점검 문항이 사용되었다. 첫 번째 주의 점검 문항은 참가자들이 시나리오를 읽은 후에 제시되었다. 참가자들은 대상이 참여하기로 결정한 임상 시험의 보상이 얼마인지(1 = ‘15만 원’, 2 = ‘100만 원’, 3 = ‘300만 원’, 4 = ‘450만 원’)를 보기 중에서 선택하였다. 참가자들이 자신이 해당하는 조건의 보상(높은 위험-보상의 수준 = ‘450만 원’, 낮은 위험-보상의 수준 = ‘15만 원’)을 선택하지 않으면, 그 참가자의 데이터는 분석에서 제외되었다. 두 번째 주의 점검 문항은 고통 추정을 측정하는 중에 제시되었다. 참가자들은 ‘아래의 보기에서 1을 선택해 주십시오(설문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지 점검하는 문항입니다)’라는 질문에 9점 척도로 답하였다. 참가자들이 1이 아닌 다른 숫자를 선택하면, 그들의 데이터는 분석에서 제외되었다.

결 과

기술통계치 및 상관 분석

주요 변인들의 기술통계치 및 변인 간의 상관은 표 1에, 주요 변인들의 조건별 평균과 표준편차는 표 2에 제시하였다. 아래 모든 분석에서 위험-보상 수준이 낮은 조건과 높은 조건은 각각 0과 1로, 대상 성별은 여성과 남성을 각각 0과 1로 코딩되어 투입되었다. 탐색적 변인으로 모형에 투입되었던 대상 성별의 조절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이원변량분석을 실시한 결과, 대상 성별의 주효과는 지각된 사회경제적 지위에서만 유의한 것으로 관찰되었으며, $p = .047$, 신체적 고통과 정서적 고통 추정에서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p_s > .23$. 또한 대상 성별의 조절효과는 모든 관심 변인에 걸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며, $p_s > .309$, 대상 성별과 참

표 1. 주요 변인들 간의 상관과 평균, 표준편차

변인	1	2	3	4	5	6	<i>M(SD)</i>
1. 위험-보상의 수준	-	.007	-.438**	-.150**	-.028	.449**	
2. 대상 성별		-	-.109	.071	-.033	.173**	
3. 지각된 사회경제적 지위			-	.083	-.080	.421**	3.51(1.55)
4. 지각된 신체적 고통				-	.485**	-.021	5.93(1.34)
5. 지각된 정서적 고통					-	.084	6.69(1.18)
6. 위험감수 성향						-	3.91(1.45)

* $p < .05$, ** $p < .01$.

표 2. 주요 변인들의 조건별 평균과 표준편차

	높은 위험-보상 수준	낮은 위험-보상 수준
위험 지각(조작 점검 1)	5.93(0.95)	3.29(1.17)
보상 지각(조작 점검 2)	3.32(1.51)	3.23(0.92)
지각된 사회경제적 지위	2.84(1.36)	4.20(1.44)
신체적 고통	5.73(1.49)	6.13(1.15)
정서적 고통	6.72(1.26)	6.65(1.11)
위험감수 성향	4.60(0.97)	3.57(1.08)

가자 성별의 상호작용 효과를 탐색적으로 살펴 보았으나 이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p > .173$. 따라서 이후에는 모형에 대상 성별을 포함하지 않은 결과를 보고하였다.

위험-보상 수준에 대한 조작 점검

참가자들이 위험-보상 수준의 조작에 따라 시나리오에 제시된 임상 시험에 참여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하다고, 얼마나 보상이 크다고 지각하는지 각각 살펴보기 위해 독립표본 t 검증을 실시하였다. 위험 지각에 대한 분석 결과, 위험-보상 수준에 따라 위험 지각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t(288) = 21.128$, $p < .001$, 95% CI = [2.385, 2.876], Cohen's $d = 2.490$. 위험-보상 수준이 높은 조건의 참가자들은 위험-보상 수준이 낮은 조건의 참가자들보다

임상 시험을 더 위험하다고 지각하였다. 보상 지각에 대한 분석 결과, 위험-보상 수준이 높은 조건과 낮은 조건 간에 보상 지각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t(288) = 0.605$, $p = .543$, CI = [-0.200, 0.378], Cohen's $d = 0.072$. 이는 위험-보상 수준이 높은 조건에서 낮은 조건에 비해 임상 시험의 위험성이 더 높은 것으로 인식되었으나, 보상 수준에서는 조건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음을 의미하는 결과이다.

위험-보상 수준이 대상의 사회경제적 지위 지각에 미치는 영향(가설 1)

위험-보상 수준에 따라 대상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다르게 지각하는지 살펴보기 위해 위험-보상 수준을 독립변인으로, 지각된 사회경제적 지

위를 종속변인으로 하는 독립표본 *t*검증이 수행되었다. 그 결과, 위험-보상 수준에 따라 대상의 사회경제적 지위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t(288) = 8.279, p < .001, 95\% \text{ CI} = [1.0359, 1.6821], \text{Cohen's } d = 0.972$. 위험-보상 수준이 높은 조건의 대상은 위험-보상 수준이 낮은 조건의 대상보다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을 것이라고 지각되었다. 이는 대상이 내린 의사결정에 따라 대상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다르게 지각할 것이라는 연구 가설 1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위험-보상 수준이 대상의 고통 추정에 미치는 영향 (가설 2)

위험-보상 수준에 따라 대상의 고통을 다르게 지각하는지 살펴보기 위해 위험-보상 수준을 독립변인으로, 추정된 신체적 고통과 추정된 정서적 고통을 각각 종속변인으로 하여 독립표본 *t*검증을 실시하였다. 추정된 신체적 고통에 대한 분석 결과, 위험-보상 수준에 따라 대상의 신체적 고통을 다르게 추정하였다, $t(288) = 2.576, p = .011, \text{Cohen's } d = 0.302, 95\% \text{ CI} = [0.0945, 0.7072]$. 위험-보상 수준이 높은 조건의 대상은 위험-보상 수준이 낮은 조건의 대상보다 신체적 고통을 덜 느낄 것으로 추정되었다. 추정된 정서적 고통에 대한 분석 결과, 위험-보상 수준에 따른 추정된 정서적 고통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t(288) = -0.479, p = .633, \text{Cohen's } d = 0.056, 95\% \text{ CI} = [-0.3406, 0.2073]$. 종합해보면, 대상이 내린 의사결정에 따라 그 대상이 느끼는 정서적 고통 추정에서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 신체적 고통 추정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므로 연구 가설 2와 부분적으로 일치하는 결과가 나타났다.

지각된 사회경제적 지위의 매개효과(가설 3)

위험-보상 수준이 대상의 고통 추정에 미치는

영향을 대상의 지각된 사회경제적 지위가 매개하는지를 살펴보았다. Hayes(2012)가 개발한 SPSS PROCESS Macro의 model 4를 사용하여 대상의 추정된 신체적 고통과 추정된 정서적 고통에 대한 매개분석을 각각 실시하였다. 독립변인을 위험-보상 수준으로, 종속변인을 대상의 추정된 고통(신체적 고통, 정서적 고통)으로, 매개변인을 대상의 지각된 사회경제적 지위로 투입하였고, 신뢰구간은 95%, 부트스트랩 샘플 수는 10,000으로 설정하였다.

신체적 고통에 대한 매개효과 분석 결과, 위험-보상 수준과 대상의 추정된 신체적 고통 간의 관계에 대한 대상의 지각된 사회경제적 지위의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B = -0.0248, SE = 0.0709, 95\% \text{ CI} [-0.1558, 0.1256]$. 또한 지각된 사회경제적 지위와 신체적 고통 추정 간의 관계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B = 0.0182, SE = 0.0561, 95\% \text{ CI} [-0.0923, 0.1287]$. 정서적 고통에 대한 매개효과 분석 결과, 위험-보상 수준과 대상의 추정된 정서적 고통 간의 관계에 대해 대상의 지각된 사회경제적 지위의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B = 0.0865, SE = 0.0688, 95\% \text{ CI} [-0.0431, 0.2270]$. 또한, 지각된 사회경제적 지위와 정서적 고통 추정 간의 관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B = 0.0666, SE = 0.1392, 95\% \text{ CI} [-0.2074, 0.3406]$. 따라서 사회경제적 지위가 위험-보상 수준과 고통 추정 간의 관계를 매개할 것이라는 연구 가설 3은 지지되지 않았다.

위험감수 성향의 매개효과(탐색적 분석)

대상의 지각된 사회경제적 지위가 위험-보상 수준과 대상의 고통 추정 사이의 관계를 매개하지 않았지만, 대상의 위험감수 성향이 두 변인 간의 관계를 매개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따라서 탐색적 목적으로 측정된 위험감수 성향이 위험-보상 수준과 대상의 고통 추정(신체적 고통, 정

서적 고통)의 관계를 매개하는지 살펴보았다.

먼저 위험-보상 수준이 대상의 위험감수 성향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독립표본 t 검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위험-보상 수준에 따른 대상의 추정된 위험감수 성향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t(288) = 8.5320, p < .001, [0.7922, 1.2674], \text{Cohen's } d = 1.001$. 위험-보상 수준이 높은 조건의 대상($M = 4.60, SD = 0.97$)은 위험-보상 수준이 낮은 조건의 대상($M = 3.57, SD = 1.08$)보다 위험감수 성향이 높게 지각되었다. 즉, 참가자들은 위험-보상의 수준이 높은 의사결정을 대상을 그렇지 않은 대상보다 위험감수 성향이 더 높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다음으로는 위험감수 성향의 매개효과를 살펴보기 위한 매개분석을 실시하였다. 가설 3의 분석 방법과 동일하게 SPSS PROCESS Macro의 model 4를 사용하였으며, 매개변인을 위험감수 성향으로 투입하였다. 신체적 고통에 대한 매개분석 결과, 위험-보상 수준과 대상의 추정된 신체적 고통 간의 관계에 대한 위험감수 성향의 매개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B = 0.0697, SE = 0.0839, 95\% \text{ CI } [-0.0983, 0.2350]$. 정서적 고통에 대한 매개분석 결과, 위험-보상 수준과 대상의 추정된 정서적 고통 간의 관계에 대한 위험감수 성향의 매개효과 또한 유의하지 않았다, $B = 0.0954, SE = 0.0747, 95\% \text{ CI } [-0.0519, 0.2425]$.

논 의

본 연구에서는 사람들이 타인이 내린 의사결정에 따라 그들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다르게 지각하는지 또한 그들이 겪는 고통에 대해 편향된 추정을 하는지 살펴보았다. 구체적으로 대상이 위험-보상 수준이 높은(vs. 낮은) 의사결정을 내린다면, 사람들은 그 대상에 대해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을(vs. 높을) 것이라 지각할 것이며, 이러한 평가가 최종적으로 대상이 느끼는 신체적

고통과 정서적 고통을 낮게(vs. 높게) 추정하도록 이끌 것으로 예측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들을 살펴보면, 연구 가설 1에서는 대상이 위험-보상 수준에 따라 내린 의사결정이 그들의 사회경제적 지위 지각에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다. 연구자들의 예상과 일치하게, 대상이 위험-보상 수준에 따라 내린 의사결정은 그들의 사회경제적 지위 지각에 영향을 미쳤다. 참가자들은 대상이 위험-보상 수준이 높은(vs. 낮은) 의사결정을 내린 경우에 그들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을(vs. 높을) 것이라 생각하였다. 연구 가설 2에서는 대상의 위험-보상 수준에 따라 내린 의사결정이 그들이 얼마나 고통을 느끼지 추정하는 것에 영향을 미치는지 신체적 고통과 정서적 고통의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신체적 고통에 대한 결과를 살펴보면, 참가자들은 대상이 내린 의사결정의 위험-보상 수준이 높은 경우보다 낮은 경우에 대상이 경험한 고통을 더 작게 지각하였다. 그러나 정서적 고통에서는 효과가 관찰되지 않았다. 참가자들은 위험-보상 수준이 높은 의사결정을 내린 대상과 낮은 의사결정을 내린 대상의 정서적 고통을 유사하게 평가하였다. 즉, 연구 가설 2는 신체적 고통 추정에서만 연구자들의 가설과 일치하는 방향으로 지지되었다. 연구 가설 3에서는 위험-보상 수준이 신체적 또는 정서적 고통 추정에 미치는 영향을 대상의 지각된 사회경제적 지위가 매개하는지를 살펴보았다. 연구자들의 예상과 달리, 지각된 사회경제적 지위는 위험-보상 수준이 신체적 또는 정서적 고통 추정에 미치는 영향을 매개하지 않았다. 또한 연구에서 관찰된 결과들은 대상 성별에 따라 달라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탐색적으로 살펴보았던 위험감수 성향의 매개효과 또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위험-보상 수준에 따른 고통 추정의 편향이 신체적 고통 추정에서는 관찰되었지만 정서적 고통 추정에서는 관찰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왜 정서적 고통 추정에 대해서는 선택지의 위험-보

상 수준에 따른 고통 추정 편향이 관찰되지 않았을까? 이러한 차이는 본 연구의 시나리오가 임상 장면을 기반으로 작성되었음을 생각해볼 때, 임상 장면의 특수성에 의해 야기된 결과로 이해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임상 시험 공고문은 그 특성상 위험 정보가 주로 신체적인 것들인 경우가 많다. 즉, 연구에서 사용한 시나리오에서 제시된 위험이 피부 괴사, 발작, 기침 등과 같은 신체적 고통과 관련이 높고 정서적 고통과는 관련성이 낮기 때문에 신체적 고통 추정에서만 편향이 발생한 것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해석은 잠정적인 것으로 후속 연구에서는 시나리오의 내용을 정서적 측면과 신체적 측면으로 나누어 사람들이 타인의 신체적 고통과 정서적 고통을 각각 다르게 지각하는지 그리고 그 기제가 무엇인지를 확인해야 할 것이다.

연구의 함의

본 연구의 결과는 의사결정 과정에 위험과 보상 정보가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선행 연구들과 차별적으로 새로운 연구 방향을 제공한다. 위험과 보상 정보가 의사결정 주체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관찰자가 의사결정자를 지각할 때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임으로써 ‘사람들은 특정 의사결정을 내린 타인을 어떻게 바라보는가’라는 새로운 연구 문제를 제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 관찰된 결과들은 사람들이 위험-보상 수준이 높은 의사결정을 내린 대상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낮다고 지각하고 (가설 1), 대상의 고통을 과소 추정(가설 2)함을 보여주었다. 의사결정과 관련된 선행 연구들 (Griskevicius et al., 2013; Petersen, Sznycer, Sell, Cosmides, & Tooby, 2013)에서는 사람들의 사회경제적 지위 수준에 따라 의사결정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는 등 의사결정자의 특성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들과 달리 의사결정자에 초점을 두지 않고 의사결정을 내린 사람을 바라보는 관찰자들의 지각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를 진행하였다. 즉, 가설 1과 2에서 발견된 결과는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의사결정이 그 대상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없더라도 의사결정과 그와 관련한 정보만으로 그들에 대해 편향적 추론을 발생시킬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에 더해, 본 연구에서 관찰한 결과는 단지 사회경제적 지위를 낮게 지각하고 고통을 과소 추정하는 것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사회경제적 지위 지각과 고통 추정에 대한 편향이 낱을 여러 부정적 결과들로 확장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사회경제적 지위 지각에 대한 편향은 그들이 도덕적 행동을 할지라도 합당한 도덕성 평가를 받지 못하거나 오히려 비난을 받을 가능성을 드러내며(Olson, McFerran, Morales, & Dahl, 2016, 2020), 고통 추정에 관한 결과들은 사람들이 높은 위험 속에서 실제로 발생할 수 있는 고통의 크기에 비해 타인이 경험할 고통을 과소 추정하게 되고, 그로 인하여 그 타인들이 필요로 하는 물질적, 정신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초래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 이와 같은 부정적 영향을 완화시킬 방법을 탐색한다면, 현상에 대한 더 깊이 있는 이해를 가능하게 할 것이다.

또한 본 연구는 최근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고조된 취업난 속에서 단기간에 큰 돈을 벌 수 있는 임상 시험 아르바이트로 많은 20대 청년, 특히 그 중 소위 ‘흙수저’로 불리는 청년들이 내몰리고 있다는 사회적 문제 제기(경향신문, 2015. 11. 7; 중앙일보, 2020. 10. 6)에 부응하는 연구로 그들이 마주할 또 다른 위험을 시사한다. 예를 들어, 위험과 보상 정보를 인지한 채로 임상 장면에 들어가는 현실 속에서 임상 연구자들은 위험성이 큰 실험일수록 참가자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더 낮을 것이라 지각하며, 참가자들이 고통에 대해 상대적으로 더 둔감하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위험성에 상응하는 안전 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험과 보상 정보가 유발하는 인지적 편향이 타인의 고

통 추정에 영향을 미쳐서 임상 연구자들이 오히려 불충분한 조치를 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처럼 본 연구의 결과는 임상 시험 참가자들이 노출되어 있는 위험이 단순히 이상약물반응 등의 부작용만이 아님을 의미하며, 사람들의 편향이라는 또 다른 위험 속에서 실험에 참가하고 있음을 드러낸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결과는 문제 제기뿐만 아니라 다양한 문제 해결 방안이 응용될 수 있다. 먼저, 연구의 결과는 임상 시험 참가자를 모집하는 연구자들의 교육 및 훈련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즉, 위험이 큰 연구에 참여하는 임상 시험 참가자들의 사회경제적 지위 지각과 그들이 느끼는 고통 추정에 대한 편향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연구자들에게 알림으로써 연구자들 스스로 나타날 수 있는 자신의 편향을 인식하고 이로 인한 부정적 결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함의는 위험과 보상 정보가 존재하는 다양한 장면에서 문제에 대한 인식과 현상에 대한 이해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사회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계점 및 후속 연구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점들을 가진다. 첫 번째, 본 연구의 가설 검증이 '임상 연구 장면'에 국한되어 진행되었기에 일반화 가능성이 낮을 수 있으나 본 연구에서 살펴본 현상은 다양한 장면에서 동일하게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위험과 보상 정보가 사회경제적 지위 및 고통 추정에 미치는 영향이 건강 행동이나 투자와 같은 다른 행동 영역에서는 나타나지 않고 오직 임상 장면에서만 나타날 것이라 보기는 어렵다. 후속 연구에서 이를 검증하여 본 연구의 가설을 다양한 장면으로 일반화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 위험-보상 수준에 따라 조작 점검 문항인 보상 지각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위험-보상 수준이 높은 경우에는

임상 시험에 참가하는 것에 대한 보상을 450만 원으로, 낮은 경우에는 15만 원으로 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참가자들은 두 조건 간의 보상금의 크기를 비슷한 수준으로 지각하였다. Kahneman과 Tversky(1979)에 따르면, 사람들은 같은 수준의 손실에 이득보다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 이를 위험과 보상 수준에 적용하면, 같은 수준의 증가된 위험과 보상일지라도 위험이 증가했을 경우에 보상의 증가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고 느낄 가능성이 있다. 본 연구에서 참가자들이 450만 원의 보상금이 높은 수준의 위험에 비해 부족하다고 생각하여 위험이 낮은 수준의 보상금인 15만 원과의 보상금의 크기 지각에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을 수 있다. 이를 고려하여 위험-보상 수준에 따른 보상 지각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위험 지각 문항을 공변인수로 하는 공변량분석(ANCOVA)이 실시되었다. 그 결과, 위험-보상 수준에 따라 보상 지각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참가자들은 위험 수준이 높은 보상의 크기($M = 3.79, SE = 0.13$)를 위험 수준이 낮은 보상의 크기($M = 2.75, SE = 0.13$)보다 더 크다고 지각하였다, $F(1, 287) = 21.249, p < .001, CI [-1.474, -0.592]$. 본 연구에서 시나리오를 사용하여 조작한 위험-보상 수준이 위험 지각에만 유의하였으나 공변량 분석을 통해 추가적으로 검증해 본 결과, 위험-보상 수준의 조작이 보상 지각에서도 유의하게 나타났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는 사람들이 위험과 보상이 같이 증가하였다도 보상에서의 증가를 동일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것을 뜻하며, 전망이론에서의 이득과 손실에 대한 설명이 본 연구의 위험-보상 지각에도 적용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위험-보상 수준을 하나로 묶어서 살펴보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나리오에 내재되어 있는 정보를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 보상 지각의 개인차가 존재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후속 연구에서는 위험과 보상에 따른 효과를 분리하여 그 차이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세 번째, 위험-보상 수준을 조작하기 위해 연구에서 사용한 임상시험 공고문이 원하는 개념을 정확히 조작하였는지 혹은 다른 가외 변인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는지 명확히 알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이를 위해 위험-보상 조작에 대한 조작 점검을 실시하였으나, 보상 지각에서 조작에 따른 차이가 관찰되지 않은 것은 연구의 조작이 불충분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또한 조작 점검 문항만으로는 두 임상시험 공고문이 참가자에게 어떻게 지각되었고 해석되었는지 그 과정을 명확하게 밝혀낼 수 없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좀 더 통제된 맥락에서 조작 지시문을 제작하고 다양한 측정 변인을 통해 참가자들의 심적 과정에 대해 세밀하게 탐색함으로써 연구에서 관찰된 효과가 실험 조작에 의한 것인지 더 명확히 드러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네 번째, 연구자들의 예상과 달리 위험-보상 수준과 고통 추정 간의 관계를 대상의 지각된 사회경제적 지위가 매개하지 않았다. 위험-보상 수준은 지각된 사회경제적 지위에 영향을 미쳤으나 대상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신체적, 정서적 고통 추정 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각각의 관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이는 선행 연구(Cheek & Shafir, 2020)에서 발견된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대상들에 대해 고통을 과소 추정하는 경향이 한국 사회에서 나타나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며, 두 변인 간의 관계에 대해 반복검증 연구를 진행해 볼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대안적 매개변인으로 대상의 지각된 위험감수 성향을 측정하여, 위험-보상 수준과 고통 추정 간의 관계를 위험감수 성향이 매개하는지 살펴보았다. 대상의 지각된 위험감수 성향은 두 변인들 간의 관계를 매개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매개효과가 검증되지 않았기에 위험-보상과 고통 추정 간의 관계를 설명할 수 있는 다양한 변인들에 대해 탐색이 필요할 것이다. 예를 들어, 참가자들은 대상이 위험한 선택을 하였다는 정보를 통해서 그 대상을 이미 강인한 사람이라고 지각하였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사람들은 힘든 삶을 살았을 것이라 생각되는 대상들에 대해서 고통을 더 낮게 지각하는 경향이 있으며(Trawalter, Hoffman, & Waytz, 2012) 이러한 편향은 힘든 삶을 살아온 대상들이 강인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에 의해 발생한다(Hoffman & Trawalter, 2016). 본 연구의 맥락에서는 사람들이 위험한 선택을 내린 대상들에 대해서 그들이 힘든 삶을 살아왔고 그들이 강인하다고 생각할 수 있으며 이러한 지각이 고통 추정에서의 차이를 불러올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와 같이 후속 연구에서는 위험-보상 수준이 고통 추정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는 다른 변인들이 무엇인지를 탐색해 보아야 할 것이다.

저자 소개

하창현은 충북대학교 심리학과에서 박사과정으로 재학 중이다.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차별, 의사결정의 차이와 인상 특징에 따른 차별 등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허성진은 충북대학교 심리학과에서 2월 석사학위를 취득할 예정이며, 다양한 사회 문제의 심리적 영향에 관심을 갖고 연구를 진행 중이다.

박상희는 충북대학교 심리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마음 지각, 집단 간 관계, 도덕적 판단, 빈부 문제, 사회심리학의 정책에의 적용 등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참고문헌

경향신문 (2015. 11. 7). 임상 시험에 몰리는 '흙수저' 청년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511071552151&code=940100에서

2021. 3. 8 자료 얻음.
대학내일 20대 연구소 (2015. 1. 20). 위험한 아르바이트 권하는 사회.
<https://www.20slab.org/Archives/2504>에서 2021. 7. 6 자료 얻음.
- 이홍표 (2002). 비합리적 도박신념, 도박동기 및 위험감수 성향과 병적 도박의 관계.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중앙일보 (2020. 12. 6). 8일에 127만원, 하루 18번 바늘꽃는 20대... “여긴 자본주의 끝”.
<https://news.joins.com/article/23938431>에서 2021. 3. 7 자료 얻음.
- Adler, N. E., Epel, E. S., Castellazzo, G., & Ickovics, J. R. (2000). Relationship of subjective and objective social status with psychological and physiological functioning: Preliminary data in healthy, White women. *Health Psychology, 19*(6), 586-592.
- Caviola, L., Schubert, S., & Nemirow, J. (2020). The many obstacles to effective giving. *Judgment and Decision Making, 15*(2), 159-172.
- Cheek, N. N., & Shafir, E. (2020). The thick skin bias in judgments about people in poverty. *Behavioural Public Policy, 1*-26.
- Drwecki, B. B., Moore, C. F., Ward, S. E., & Prkachin, K. M. (2011). Reducing racial disparities in pain treatment: The role of empathy and perspective-taking. *Pain, 152*(5), 1001-1006.
- Eriksson, K., Strimling, P., & Coultas, J. C. (2015). Bidirectional associations between descriptive and injunctive norms. *Organizational Behavior and Human Decision Processes, 129*, 59-69.
- Faul, F., Erdfelder, E., Lang, A. G., & Buchner, A. (2007). G* Power 3: A flexible statistical power analysis program for the social, behavioral, and biomedical sciences. *Behavior Research Methods, 39*(2), 175-191.
- Gino, F., & Pierce, L. (2010). Robin Hood under the hood: Wealth-based discrimination in illicit customer help. *Organization Science, 21*(6), 1176-1194.
- Griskevicius, V., Ackerman, J. M., Cantú, S. M., Delton, A. W., Robertson, T. E., Simpson, J. A., ... & Tybur, J. M. (2013). When the economy falters, do people spend or save? Responses to resource scarcity depend on childhood environments. *Psychological Science, 24*(2), 197-205.
- Gutierrez, H. C., & Hershey, D. A. (2013). Impact of retirement worry on information processing. *Journal of Neuroscience, Psychology, and Economics, 6*(4), 264-277.
- Hayes, A. F. (2012). PROCESS: A versatile computational tool for observed variable mediation, moderation, and conditional process modeling.
- Hoffman, K. M., & Trawalter, S. (2016). Assumptions about life hardship and pain perception. *Group Processes & Intergroup Relations, 19*(4), 493-508.
- Jackson, J. C., & Payne, K. (2020). Cognitive barriers to reducing income inequality. *Social Psychological and Personality Science, 1*-10.
- Joynt, M., Train, M. K., Robbins, B. W., Halterman, J. S., Caiola, E., & Fortuna, R. J. (2013). The impact of neighborhood socioeconomic status and race on the prescribing of opioids in emergency departments throughout the United States. *Journal of General Internal Medicine, 28*(12), 1604-1610.
- Kahneman, D. Tversky, A. (1979). Prospect theory: An analysis of decision under risk. *Econometrica, 47*(2), 263-292.
- Knowles, E. S., Cutter, H. S. G., Walsh, D. H., & Casey, N. A. (1973). Risk-taking as a personality trait. *Social Behavior and Personality, 1*, 123-129.

- Olson, J. G., McFerran, B., Morales, A. C., & Dahl, D. W. (2016). Wealth and welfare: Divergent moral reactions to ethical consumer choices.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42(6), 879-896.
- Olson, J. G., McFerran, B., Morales, A. C., & Dahl, D. W. (2021). How income shapes moral judgments of prosocial behavior. *International Journal of Research in Marketing*, 38(1), 120-135.
- Petersen, M. B., Sznycer, D., Sell, A., Cosmides, L., & Tooby, J. (2013). The ancestral logic of politics: Upper-body strength regulates men's assertion of self-interest over economic redistribution. *Psychological Science*, 24(7), 1098-1103.
- Prediger, S., Vollan, B., & Herrmann, B. (2014). Resource scarcity and antisocial behavior. *Journal of Public Economics*, 119, 1-9.
- Richard, F. D., Bond Jr, C. F., & Stokes-Zoota, J. J. (2003). One hundred years of social psychology quantitatively described. *Review of General Psychology*, 7(4), 331-363.
- Schoemann, A. M., Boulton, A. J., & Short, S. D. (2017). Determining power and sample size for simple and complex mediation models. *Social Psychological and Personality Science*, 8(4), 379-386.
- Shah, A. K., Mullainathan, S., & Shafir, E. (2012). Some consequences of having too little. *Science*, 338(6107), 682-685.
- Shah, A. K., Shafir, E., & Mullainathan, S. (2015). Scarcity frames value. *Psychological Science*, 26(4), 402-412.
- Shapiro, G. K., & Burchell, B. J. (2012). Measuring financial anxiety. *Journal of Neuroscience, Psychology, and Economics*, 5(2), 92-103.
- Summers, K. M., Deska, J. C., Almaraz, S. M., Hugenberg, K., & Lloyd, E. P. (2021). Poverty and pain: Low-SES people are believed to be insensitive to pain.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95, 104116.
- Tankard, M. E., & Paluck, E. L. (2017). The effect of a Supreme Court decision regarding gay marriage on social norms and personal attitudes. *Psychological Science*, 28(9), 1334-1344.
- Trawalter, S., Hoffman, K. M., & Waytz, A. (2012). Racial bias in perceptions of others' pain. *PLoS ONE*, 7(11), e48546.
- White, A. E., Kenrick, D. T., & Neuberg, S. L. (2013). Beauty at the ballot box: Disease threats predict preferences for physically attractive leaders. *Psychological Science*, 24(12), 2429-2436.

1 차원고접수 : 2021. 11. 10.
수정원고접수 : 2022. 01. 07.
최종게재결정 : 2022. 01. 17.

The effect of the risk-reward level of options on perceived socioeconomic status and pain estimation of the decision-maker

Chang Hyun Ha

Seongjin Heo

Sang Hee Park

Department of Psychology,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Focusing on how people perceive a person who makes a decision based on risk-reward levels, this study tested whether choosing a high risk-reward option leads to perceiving the decision-maker as of lower socioeconomic status, and whether this perception leads to underestimating the target's emotional and physical pain. Therefore, we set the perceived socioeconomic status as a mediator. For the exploratory purposes, we set the target's gender as a moderator and the target's risk-taking tendency as a mediator. We found that participants perceived the socioeconomic status of the target who made the high (vs. low) risk-reward decision, as lower (vs. higher) and estimated the target's physical pain as lower (vs. higher). There was no difference in the estimation of emotional pain depending on the risk-reward level. In addition, contrary to our predictions the effect of risk-reward level on pain estimation was found to be independent of socioeconomic status percept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indicate that just as the risk-reward information can influence the choice of decision maker, it could also influence the observer's perception of the decision makers.

Keywords : risk-reward level, socioeconomic status, pain estimation

부록 I: 위험-보상 시나리오

〈위험-보상 수준 낮은 조건〉

임상시험 대상자 모집공고

- 제목

건강한 성인 지원자를 대상으로 RGA4858의 경구 투여 시 안전성 및 약력/약동학적 특성을 평가하기 위한 무작위 배정, 공개, 반복 투여, 교차설계 1상 임상시험

- 자격 및 선정요건

선별 검사 시 연령이 만 19세 이상 만 50세 이하인 지원자

본 임상시험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듣고 완전히 이해한 후, 자의로 참여를 결정하고 임상시험 기간 동안 대상자 주의사항을 준수하기로 서면 동의한 자

- 시험 약품 효능*효과

RGA4858: 본태성 고혈압, 미란성 역류식도염, 원발성 이상베타리포프로테인혈증의 개선

서로 다른 2개의 순서 군에 배정되는 확률은 각각 1/2이며 무작위로 배정되며 제 1기 및 제 2기에 교차로 투약합니다.

- 예측 가능한 부작용

RGA4858: 가벼운 기침 및 코막힘, 졸음, 식욕감소, 가려움, 경미한 복통, 소화불량

- 연구 보상

임상 참가 사례비: 15만원(8.8%제세포함)

시험종료일로부터 2~4주일 내외로 참여하신 병원에서 직접 본인 통장으로 입금됩니다.

〈위험-보상 수준 높은 조건〉

임상시험 대상자 모집공고

● 제목

건강한 성인 지원자를 대상으로 QEP2192의 경구 투여 시 안전성 및 약력/약동학적 특성을 평가하기 위한 무작위 배정, 공개, 반복 투여, 교차설계 1상 임상시험

● 자격 및 선정요건

선별 검사 시 연령이 만 19세 이상 만 50세 이하인 지원자

본 임상시험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듣고 완전히 이해한 후, 자의로 참여를 결정하고 임상시험 기간 동안 대상자 주의사항을 준수하기로 서면 동의한 자

● 시험 약품 효능*효과

QEP2192: 위, 십이지장궤양, 상부소화관출혈, 엘리슨증후군의 개선

서로 다른 2개의 순서 군에 배정되는 확률은 각각 1/2이며 무작위로 배정되며 제 1기 및 제 2기에 교차로 투약합니다.

● 예측 가능한 부작용

QEP2192: 뇌경색 또는 발작, 피부 괴사, 백혈구 감소, 알칼리성 인산가수분해효소의 상승

● 연구 보상

임상 참가 사례비: 450만원(8.8%제세포함)

시험종료일로부터 2~4주일 내외로 참여하신 병원에서 직접 본인 통장으로 입금됩니다.
